

정유4사, 국제유가 하락에 “적자”

GS칼텍스·S-Oil 영업적자로 전환 ... SK이노베이션도 1/10로 격감

국내 정유4사가 2013년 2/4분기에 정유사업 부문에서 부진을 면치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국제유가 하락으로 정제 마진이 감소함으로써 본업 가치가 훼손됐기 때문으로 평가된다.

정유산업계에 따르면, 정유4사는 2/4분기에 외형 및 수익부문이 모두 부진했다.

SK이노베이션(대표 구자영)은 2/4분기 영업이익이 1/4분기에 비해 1/10 수준으로 격감했다. 1/4분기 38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SK에너지가 2/4분기에는 영업이익이 387억원에 그쳤기 때문이다.

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“수익성 악화는 정제마진이 약화됐고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고 손실이 커진 데 따른 것”이라고 밝혔다.

2위인 GS칼텍스(대표 허진수)는 정기보수 작업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정유부문 영업실적이 1303억원의 손실을 기록했고 지주회사 경영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.

광진희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“GS칼텍스는 2/4분기에 예상치를 하회하는 영업실적을 기록했다”며 “GS의 2/4분기 경영실적이 예상을 하회한 것도 연결 자회사인 GS칼텍스의 부진에 따른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S-Oil(대표 Nasser Al-Mahasher)은 정유부문 매출이 5조7038억원으로 총매출의 81.8%를 차지했으나 영업이익은 594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.

현대오일뱅크(대표 권오갑)는 2/4분기에 정유부문 매출액이 4조6641억원으로 1/4분기에 비해 14.7%, 전년 동기 대비 13.0% 감소했다. <저작권자 아시아경제 -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3/08/16>